

“택시 오디오 볼륨 낮춰주세요”

■ 금남로 일대 택시내 소음 측정 해보니...

택시 운전사들이 지나치게 차량 오디오 볼륨을 높여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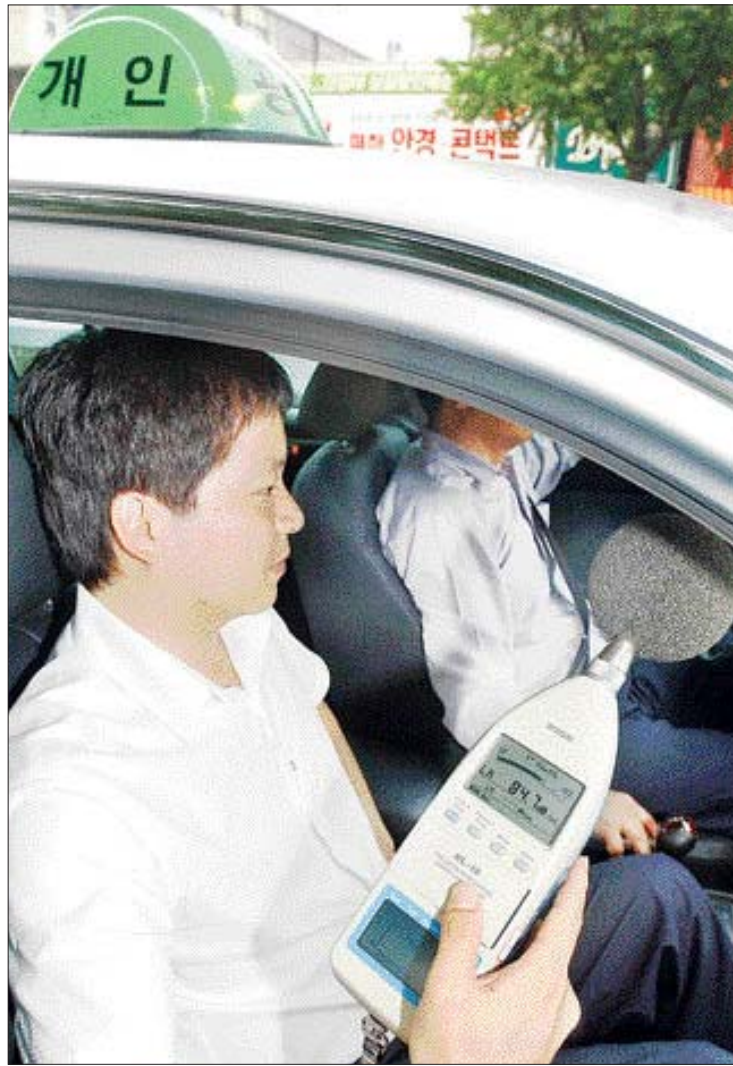
회사원 문미영(여·35·광주 북구 임동)씨는 출퇴근길 택시를 타려면 짜증부터 난다. 일부 운전사들이 지나치게 차량 오디오 볼륨을 높이기 때문이다. 20여 분 동안 차를 타야 하는데 좀처럼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

김씨는 “라디오 뉴스는 그나마

청취했을 때, 운전석 옆 좌석에서 측정할 5분 평균 소음은 76dB이었다.

이는 사람들의 대화(60dB)·밀폐된 사무실(50dB)에 비해 시끄럽다. 일반인들이 다소 시끄럽다고 느끼는 전화벨(70dB)보다 심하고, 지하철 차내 소음(80dB)과 비슷하다.

오디오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5대의 택시 내부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결과, 차 종류에 따라 소음은



지난 2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택시 내 오디오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최고 110dB... 열차보다 소음 심해 시민들 대부분 “불편해도 참아요” ‘평가제 도입’ 서비스 개선 나서야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운전사가 승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노래를 일방적으로 틀어 놓아 불편하다”며 “혹시나 언짢아 할까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도 못하고 참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렇다면 택시 안 오디오 소음은 어느 정도나 될까? 지난 20일 오후 4시에 광주 남구청 환경관리과 소음 담당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동구 금남로 일대에 정차중인 택시들을 대상으로 측정해 본 결과 심할 경우, 열차가 지나가는 것보다 시끄러웠다.

현대자동차 소나타(2002년식) 차량의 경우 운전사 조모(49)씨가 모 방송국 라디오 뉴스를 평소처럼

98~110dB이 나왔다. 큰소리로 독창(90dB)을 하거나 달리는 철도 소음(100dB)보다 심한 차량도 있었다.

더구나 성능이 좋은 오디오 스피커로 교체하거나 보조 스피커를 추가 장착한 택시들이 많아 소음은 실제보다 더 심하다는 게 운전자들의 얘기다.

하지만,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택시 내부의 소음 규정은 따로 없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주거·복지·공공도서관·병원(65~70dB)과 주거지역 교통소음(58~68dB) 등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택시 등 대중 교통의 차량 내 소음 규제는 없다.

“(사)시민생활환경회의’ 김강달 상임이사는 “대부분 시민들이 불편해도 참고 있는 실정이다”며 “회사 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 시민 평가제’를 도입해 개선하지 않는 회사는 택시 증차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회사별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소음 관련 교육을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현재 개인택시 4천800대, 법인택시 3천500대가 운행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동구,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

광주 동구는 22일 일본 도쿄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 서태평양 지역사무국로부터 건강도시연맹 가입 승인을 최종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는 조만간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위한 제반 서류 작성 절차를 밟은 후 노인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동구가 추진하게 될 건강도시 프로젝트에는 구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 등 사회적 환경요인을 종합

진단하고, 분석된 자료에 근거해 실천 가능한 해결방안과 제도적 장치 등이 담기게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노인·장애인 등 건강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 배려 등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도시를 질병예방·건강증진·건강회복을 위해 도시기반 환경의 계획적인 관리·지속적인 생활환경개선·질 좋은 보건의료환경이 구축된 도시를 의미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인화학교 학생들에 관용 촉구

시민모임 200여명

광주 인화학교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결성된 ‘인화학교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 21일 오후 광주 무등산 중심사 문화마당에서 ‘인화학교 정상화를 위한 광주시민 선언식’을 갖고 고소·고발된 학생들에 대한 관용을 촉구했다.

선언식에는 광주·전남 PD연합회, 민변 광주지부 및 시민 모임 회원과 인화학교 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고소 고발된

인화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의 틀 안에서 관용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사법당국이 앞장서고 아울러 수화통역 가능 교사 채용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인화학교에서는 장애학생 성폭행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교직원 이 최근 복직하는 등 학교 측과 학생,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장에게 달걀 등을 던져 경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축산물법 위반 4곳 적발

광주시는 영업장 무단 폐쇄 등 축산물 관련법을 위반한 가공업소 등 4곳을 적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22일 밝혔다.

점검결과, 광주 북구 일곡동 A업소와 광산구 월전동 B업소는 영업장을 임의로 폐쇄해 허가가 취소됐다.

광산구 안청동 C업소는 육가공제품 위탁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단속됐으며 북구 두암동 D업소는 원료와 생산기록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시, 지방세 체납 단계별 제재

- ▶ 500만원 미만-예금 즉시 압류
- ▶ 500만원 이상-금융 거래 제한
- ▶ 1,000만원 이상-예금인출 차단
- ▶ 5,000만원 이상-출국금지 조치
- ▶ 1억원 이상-연말에 명단 공개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을 없애기 위해 체납 규모에 따라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22일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 체납자의 예금 및 매출채권을 즉시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의 경우 주거래 은행과 재무상태, 당좌 거래정지 유무, 매출처 등을 확인,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는 또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을 금융기관 등에 등록, 매출 즉시 압류 이외에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각종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여기에 예금인출도 불가능하도록 관련조치를 하고 5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1억원 이상은 연말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선 구와 합동으로 첨단 IT장비인 ‘차량탐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광주지역 체납액은 700억원이 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체는 250억원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우리밀빵 만들기 체험학교

31일부터 한달간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우리밀빵 만들기 체험학교’를 연다.

학교는 매주 화·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모두 10차례 진행되며, 선착순 30명에 한해 교육한다.

‘우리밀빵 만들기 체험학교’는 우리밀살리기 운동 광주·전남본부가 방학을 맞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 마련한 행사로 이번이 세번째다.

참가자들은 광주시 북구 본촌동 우리밀공장을 견학 한 후 우리 밀 가루의 반죽과 발효 및 성형 등 밀가루가 빵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구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환경 영상물을 시청하며,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식빵과 모닝빵은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문의 (062-573-128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초·중학생 160명 ‘119 여름수련회’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3일부터 4일간 광산구 소촌동 광주소방학교에서 ‘119소년단 여름수련회’를 연다.

이번 수련회에는 시내 초·중학교 119소년단원 160여명이 참가하며 인공 호흡법과 응급처치, 소방차 방수체험 등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하게 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지난해 여름 광주소방학교에서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 ‘119소년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제공)

생활안내

교통안내	생활정보	신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 생활법률상담소 671-4050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철도안내 1544-7788	●24시간 청소년상담 광주 YWCA 527-0011	전남경찰청 226-0112
대원항공 222-2000	●국번없이 1388	광주지검 233-2828
아시아나항공 221-6300	●국제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사이버테러 02118
한국도로공사 1588-2505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가정폭력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여지행시기동대 363-0155
●당직번호(23일) 송현규 234-3662	광주 YWCA 524-5400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법무사회 법률상담(23일) 오규철 370-0600	주부고실 232-0643-4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신선농기계, 고성능농기계, 안전농기계, 저유농기계, 동력농기계

산아싱(주) (062)363-4800

● 스프링클러 ● 고성능농기계 ● 저유농기계 ● 동력농기계
● 수입농기계 ● 비닐심기 ● 소형농기계 ● 소형농기
● 소형농기

EVERY 여름 신상품 30~50% SALE

OPEN

주요브랜드: HUGO BOSS, PRADA, BURBERRY, GUCCI, CALVIN KLEIN, TOMMY HILF, HUGO BOSS, PRADA, BURBERRY, GUCCI, CALVIN KLEIN, TOMMY HILF